

## 사는 지혜

재단사 출신으로 크게 성공한 미국의 17 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 은 고매한 인격과 뛰어난 지성을 겸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번은 그가 시의회 의원으로서 연설을 하는데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양복쟁이 출신 주제에" .....  
존슨은 그 빈정거림을 다음과 같이 부드럽게 받아넘겼습니다.  
"어떤 신사께서 저를 양복쟁이 출신이라고 하는군요, 뭐 괜찮습니다.  
그 일을 할 때도 저는 일등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님과의 약속을 꼭 지켰고 제 옷은 언제나 최고였지요"

어떤 한가지 일을 최고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일도 최고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과연 최선을 다한 것일까? 또 자문해봅니다.

## 生きる知恵

裁断師出身で大きく成功したアメリカの17代大統領'エンドリュージョンソン'は高邁な人格とすぐれた知性を兼備した人だったと言います。一度は彼が市議会議員として演説をするのに群衆の中で誰か叫びました。  
"洋服屋出身のくせに" .....  
ジョンソンはそのあてこすりを次のようにやんわりと受け流しました。  
"あるジェントルマンが私を洋服屋出身だと言いますね、何の問題ありません。  
その仕事をする時も私はトップだったからです。私はお客さんとの約束を必ず守ったし私の服はいつも最高だったのです。"

どんなひとつの仕事を最高にすることができない人は他の事も最高にはできないという話があります。  
今日、私は果して最善をつくしたのか?  
自分に言い聞かせて見ます。